

김제 금산사 후백제 문화사 정립 총력전

24~25일 학계·불교계 저명 석학들 총집결 '후백제 불교와 김제 금산사' 주제 학술대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이달 24일부터 25일 까지 2일에 걸쳐 전국의 학계와 불교계의 저명 석학들을 모시고 후백제사에 있어서 김제 금산사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대회를 13시부터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제 금산사 일원

동주관, 전라북도도와 금산사,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등 후백제 학계와 불교계가 함께 모여 후백제 문화사를 정립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 금산사는 진표유사가 미륵사상의 성지로 중창한 이후 나라 잃은 백제유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던 안식처로 작용하였으며, 신라에 반기를 들며 미륵사상을 바탕으로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의 일이 서려 있는 곳으로 당시의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학계와 불교계가 함께 참여하여 전국의 석학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그간 정리되지 못한 후백제사의 다양한 부분이 채워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논의된 성과는 검증과정을 거쳐 공식적 학술지로 발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3회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

내달 2일 전주교대 황학당서 개최

전주시와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가 오는 12월 2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청소년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해 이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동아리와 청소년센터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은호 회장(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은 "이번 콘서트는 청소년의 문화 활동 참여의 기회가 되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밝고 도전정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문



화 활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콘텐츠 창작자 소통·역량 강화 나서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성과발표회' 성료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IP 제작 및 피칭을 통해 역량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콘텐츠 성과발표회'(이하 발표회)를 레벨업캠프와 피칭데이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22일 이에 따르면, 전주 왕의 지밀 호텔에서 지난 6~7일 레벨업 캠프를 진행했으며 콘텐츠 창작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 강연, 모의피칭 등을 진행했다.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센터에서 지난 9일 진행된 피칭데이는 창작자 12팀, 창업자 20팀 총 32팀이 시제품 전시와 성과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한 5팀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콘텐츠 창업자 '스튜디오 메리(대표 김경민)'는 미국 대학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상에 귀여운 소재를 더한 하이틴 웹툰 '죽여줘 다니엘' 콘텐츠 아이টে를 발표하여 수상했으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플랫폼 시장진출을 위한 방향이 설정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IP 제작 및 피칭을 통해 역량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콘텐츠 성과발표회'를 레벨업캠프와 피칭데이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전북지역의 창작자들이 지난 6개월간 콘텐츠코리아랩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콘텐츠 아이টে를 공유했고, 창작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진흥원 최용식 원장은 "전라북도 콘텐츠 창

작자들의 상상력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창작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 콘텐츠 창업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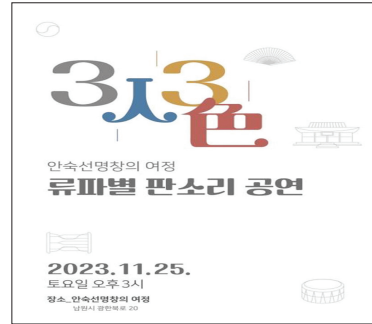
안숙선 명창의 여정, 3인 3색 류파별 판소리 공연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명창 소리꾼 3인 3색이 들려주는 류파별 판소리(춘향가, 흥보가, 심청가)의 색다른 소리의 향연이 펼쳐진다.

첫 막을 올릴 김미나 명창(남원 출신)은 현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장으로, 안숙선 명창으로부터 배운 만정재 춘향가를 부며, 만정재는 해방 이후 최고의 여창인 김소희 명창이 일제강점기 5명의 명창의 소리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들만을 모아 새로 춘향가를 짰다.

두번째는 김연 명창이 우리나라 창극을 이끌었던 김연수 명창이 해방 이후에 연극적인 판소리로 만든 동초계 판소리로, 여자 소리꾼들은 무대에서 연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데 이런 데서 필요한 연극적인 능력을 발휘할 김연 명창이 관중을 휘어잡는 너름새로 동초계 흥보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명창은 강산제 혹은 보성소리 심청가로, 서편제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박유진 명창부터 전라남도 보성지역에서 이어 지던 판소리다. 동편제 판소리가 극 중심의 소리라고 한다면, 보성소리는 성음 중심의 음악 중심의 소리인 것이다. 김태희 명창을 통해서 성음 중심의 보성소리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벽천미술관서 '헌정, 내 마음 존경을 담아' 기획전시

김제벽천미술관사업소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기획전시 '헌정(獻呈), 내 마음 존경을 담아'라는 주제로 벽천미술관에서 기획전시를 한다.

이번 전시는 1999년 벽천미술관을 건립할 당

시 벽천 나상목 선생의 문하 제자들이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증한 45점과 올해 5월에 기증한 제자 작품 1점을 포함 총 46점 중 23점을 선별해 기획전시를 한다.

출품된 문하제자들의 작품은 서양화와 동양

화 등 다양한 재료 및 기법을 사용했으며, 풍경화와 추상화 등 주제 또한 이채(異彩)롭다. 이러한 창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문하제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아 작품을 표현했다.

정성주 시장은 "벽천 나상목 선생의 문하제자들이 스승에게 무한한 존경을 담아 기증한 작품을 감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부안예술회관, 동화 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시의 모험' 공연

부안예술회관은 다가오는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고자 온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동화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시의 모험' 공연을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선보인다.

동화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시의 모험'은 화려한 발레 퍼포먼스와 함께 미술쇼, 군무가 함께하여 아름다운 동화 내용을 보여주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 지혜로움, 가족의

소중함을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본 공연은 소녀 도시가 이상한 나라에 떨어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고, 길을 찾던 중 허수아비, 나무꾼 등과 함께 지혜롭고 용감하게 이겨내는 도시를 발견할 수 있다.

티켓예매는 티켓링크에서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예매티켓 수령은 공연 1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